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治療醫學精神

송 일 병*

Abstract

Dongmu Lee Je-ma's minds of treatment presented in 『Dongyi Soose Bowon』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Background and Purpose

Through 『Dongyi Soose Bowon』, Dongmu Lee Je-ma supposed the minds of management for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which had been accomplished through several steps from his early writings to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His basic minds of treatment for disease had been supposed early in 『Gyojapyungseongjam』 and 『Gyukchigo』, and had been completed to the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and the minds of management for it, from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to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the minds of treatment of 『Dongyi Soose Bowon』, through classifying and researching the early minds of treatment (presented in 『Gyojapyungseongjam』, 『Gyukchigo』,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the latter minds of treatment (presented i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Methods

It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his writings such as 『Gyojapyungseongjam』, 『Gyukchigo』,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Results and Conclusion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At early, Dongmu Lee Je-ma pursued the minds of treatment at the autonomous control through 'Acquaintance and Self-control' based on 'the Knowledge of Nature and Desire', so emphasized 'self-control' as important point in treatment.
2. From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Dongmu summarized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structurally in view of Morpho-imaginary. In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yi Soose Bowon』 written in 1894, It was described in view of small organ, but in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suggested more updated in view of both large and small organ and to which added the concept of Hot and Cold.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주임교수

교신저자: 송일병 주소)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전화)958-9232 E-mail)ibsong@khmc.or.kr

3. Through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terior and exterior disease in 『Sanghanrhon』, the concept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had started as the minds of treatment for individual disease, but in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it was accomplished as the minds of broad management for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4. In 『Dongyi Soose Bowon』 published in 1901, the broad therapeutic prescriptions for manage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were proposed newly, according to the accomplish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atic patterns, so these have different aims and are more important than that proposed previously.
5. The control in view of 'Knowledge and Deed' and the minds of management for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are the minds and spirits for treatment and prevention against disease, which can maximize the power of autonomous self-treatment and manage all disease broadly.

I. 緒論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東武 李濟馬는 四象人體質病證의 運營精神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初期 著作부터 『東醫壽世保元』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완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教子平生箴』과 『格致藁』 등에서 그의 原論의 인 疾病治療精神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등을 거쳐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의 體質病證 및 그 運營精神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東武公 治療醫學精神의 한 足跡을 찾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의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東武公의 初期著作과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사이의 중간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그의 治療醫學精神의 형성과정을 알 수가 있었다.

본 演者는 東武公 初期 著作인 『教子平生箴』, 『格致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등에 나타난 初期 治療精神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등에 나타난 後期 治療精神으로 나누어 『東醫壽世保元』의 治療精神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性慾論의 知行論

東武公은 그의 초기 著作인 『教子平生箴』(1882), 『格致藁·獨行篇』(1882) 등을 통하여 儒學의 배경을

바탕으로 自律的 調節精神에 입각한 性慾論의 知行論을 제시하였다. 이는 東武公 初期 治療精神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까지 이어지고 있다.

(1) 『教子平生箴』에 나타난 性慾論의 知行論

東武公은 1882년에 著述한 『教子平生箴』에서 "... 寡慾力行, 遇事求知, 知多心活, 慾多心傷."이라 하고, "修之者吉, 不修者凶"이라 하였으며, "... 以慾心而喜者, 急喜而必傷, 以義心而喜者, 緩喜而不傷."이라 하여 慾心を 줄이며 知慧를 구하고 힘써 행하여야 하는 自律的 노력으로서의 知行을 강조하였다. 이는 知行의 상태가 慾心を 떠나 性에 가까워지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知行의 修不修에 따라 疾病이 治療되고 人格 修養이 完成됨을 제시한 것이다.

(2) 『格致藁·獨行篇』에 나타난 性理와 情欲의 의미

『格致藁·獨行篇』에서는 "有皇上帝降衷于下民若有恒性 性者 理也 有藐下民聽命于上帝箇有眞情 情者 欲也"이라 하여 性理와 情欲간의 관계를 말하였고, "理之未盡於性者 謂之才 才之分 有千萬等 而下愚以上 皆有才也 欲之不合於情者 謂之慾 慾之分 有千萬等 而中知以下 皆有慾也"라 하여 理가 本性에 다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才라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欲)이 情과 합치하지 않는 것을 慾이라 하였다. 또한 "蓋才者 所同也 所同者 同成其利也 慾者 所獨也 所獨者 獨倖其利也 同成其利者 義之和也 衆人皆能之也 獨倖其利者 亂之始也"라 하여 才는 함께 그 이로움을 이루는 것으로 義로 和合한다

하였고, 慾은 홀로 그 이로움을 바라는 것으로 紛亂의 시작이라 하였다. 以上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즉 性理는 才로 義로의 和合으로, 情欲은 慾으로 亂의 시작으로 연결하여 正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人性善也 人慾惡也 性者 慾之白 慾者 性之黑”이라 하여 人性은 善한 것이고 人慾은 惡한 것으로 보았다.

표 1. 性理와 情欲

性 - 理	理之未盡於性者 → 才 → 所同也 → 同成其利 → 義之和
情 - 欲	欲之不合於情者 → 慾 → 所獨也 → 獨俸其利 → 亂之始

以上의 내용은 性慾論의 知行論의 기본 토대로 東武公 治療精神의 根幹이 되게 된다. 또한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性氣’와 ‘情慾’,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의 ‘性氣’와 ‘情氣’의 개념으로 확대되게 된다.

性慾論의 知行論은 儒學의 배경을 바탕으로 藥物外的인 차원에서 人間의 自律의 調節을 통해 健康을 管理하고 人格을 修養하고자 하는 東武公 治療精神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東武公의 知人正己論

『教子平生箴』이나 『格致藥』에 나타난 性慾論의 知人論은 人間의 內面世界를 파악하여 人性의 善惡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는 「反誠箴」에서 ‘隱惡而揚善’하고, ‘察乎詭詐’함을 강조하는 一般論的 正己論으로 요약이 된다.

한편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知行之象’을,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體形氣像’의 形象觀의 知人論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外部現象을 통하여 內部世界를 파악하는 것으로 體質

論的 正己論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이 성립하게 된다. <표 2.>

이상의 一般論的인 性慾論의 知人正己論과 體質論的인 形象觀的 知人正己論은 東武公 治療精神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體質病證 成立 이전의 治療精神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1) 形象觀的 認識方法의 제시

① 知行之象의 제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四統』에서는 “太陽之知 知而過也 衆人之過於知者 易爲詐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衆人之愚而不及者 易爲嗇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衆人之賢而過者 易爲侈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衆人之不肖而不及者 易爲懶也.”이라 하여 衆人의 知行之象을 제시하였고,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 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 明於德也 明於德者 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 言於善也 善也者 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 行而誠也 誠也者 誠於物也 少陽之象也.”라 하여 聖人의 知行之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통하여 聖인과 衆人의 心性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四象人을 구분하는 體質診斷의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② 體質病證의 內外緩束의 構造的 調節精神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통하여 形象觀的 認識方法에 의거한 體質病證의 內外緩束의 調節精神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에서 “太陰之藥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 宜清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 宜固中而不宜通外, 少陰之藥 宜溫裏而不宜清腸.”이라 하여 太陰人의 ‘通外’, 少陽人의 ‘清腸’, 太陽人의

표 2. 性慾論的 知人正己論과 形象觀的 知人正己論

性慾論的 知人論 (一般論的)	形象觀的 知人論 (體質論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性理 情欲 (『格致藥·獨行篇』) - 人間의 內面世界를 파악 - 人性의 善惡을 파악 - 「反誠箴」에서 一般論的 正己論으로 요약 (隱惡而揚善 / 察乎詭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知行之象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體形氣像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 外部現象을 통하여 內部世界를 파악 - 四象人의 體質을 구분 - 『東醫壽世保元』에서 體質論的 正己論으로 발전 →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이 성립되게 됨.

‘固中’, 少陰人の ‘溫裏’라는 體質病證 調節精神의 大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各論의인 치료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단계여서 그 실제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病變』篇에서는 素證 중심의 病論을 提示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體質證 및 體質病證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단순 개개 病證의 나열에 불과하다. 즉 이는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바탕으로 體質證과 體質病證을 구조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體質病證 概念이 정립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③ 偏小之臟 중심의 病理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二統』에서는 “太陽人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肝, 故 太陽人 以肝臟剝削 爲命脉長短. 太陰人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肺, 故 太陰人 以肺臟剝削 爲命脉長短. 少陽人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腎, 故 少陽人 以腎臟剝削 爲命脉長短. 少陰人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脾, 故 少陰人 以脾臟剝削 爲命脉長短.”이라고 하여 人間의 壽不壽를 결정하는 ‘命脈實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內傷外觸이 四象人의 偏小之臟에 영향을 주어 결정되는 것으로, 形象觀的 認識方法에 의거한 偏小之臟 중심의 病理觀이라 할 수 있다.

(2) 性慾論的 認識方法의 제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第三統』에서는 “久病病症重者, 性氣緩傷之病也, 新病病症重者, 情慾暴傷之病, 暴傷者 則易治而時刻亦急, 緩傷者 難治而歲月

亦延, 久病命脉弱者易生, 新病命脉弱者難生, 如此者何也, 秋生所易故也.”이라 하여 新病·久病·急病·緩病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치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教子平生箴』과 『格致藥』에서 제시되고 있는 性理와 情慾의 認識方法이 확대되어, 性氣와 情慾에 의한 緩病 暴病의 구분정신으로 발전한 것이다.

(3) 體質病證 성립 이전의 治療 處方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에서는 少陽人 處方 總 38方, 少陰人 處方 總 13方, 太陰人 處方 總 29方, 太陽人 處方 總 2方을 제시하였다.<표 3.> 그러나 아직 表裏病證의 개념이 설정되지 못하여 表裏藥物이 混用되어 나타나며, 포괄적인 病證管理 차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개개 病證의 治療處方 으로서만 제시되고 있다. 결국 體質病證 성립 이전의 單方에 불과한 處方들로 그 수는 많으나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 甲午本』과 『辛丑本』으로 가면서 體質病證의 개념과 表裏病證의 개념이 점차 성립되게 되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의 處方 중 대부분이 도태되고 일부만이 채택이 되어 體質病證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處方으로 발전하게 된다.

3. 體質病證 成立 이후의 治療精神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통하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四象人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을 構造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體質病證 및 表裏病證에 대한 기본 토대가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표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藥方」에 제시된 處方

少陽人處方 (總 38方)	敗毒散 六味地黃湯 消毒散火湯 三黃石膏湯 瀉青湯 少陽利水湯 五苓散 益元散 導赤散 白虎湯 陷胸湯 朱砂安神湯 單黃連湯 肥兒丸 芫花蠶甲散 甘遂天一丸 輕粉丸 腰將軍湯 參瓜湯 加味既濟湯 清陽散火湯 苦參敗毒散 瓜蒌地黃湯 黃柏地黃湯 防風通聖散 千金導赤散 柴胡瓜蒌湯 白虎湯 渡海白虎湯 豬苓白虎湯 陽毒白虎湯 七味苦參湯 水火既濟湯 七味豬苓湯 參苓湯 忍冬藤茯苓湯 獨活防風湯 加味破瘀湯
少陰人處方 (總 13方)	茴香正氣散 香蘇散 四君子湯 四物湯 八珍湯 錢氏異功散 補中益氣湯 蘇合香元 枳朮丸 川當湯 導痰湯 香丹白元子 半藏湯
太陰人處方 (總 29方)	太陰麻黃湯 寧神承陰煎 九味天門冬湯 清心側柏葉湯 解熱升陰湯 升清解鬱湯 生脈散 山藥和胃煎 皂角黃芩大黃湯 青礞石滾痰丸 石苧蒲酒 麥龍湯 治淋湯 桔麥石龍湯 葛根龍腦子湯 乾架葛根湯 升陰葛根湯 補肺生脈散 清升葛根湯 葛根二黃湯 加葛根湯 天門冬潤肺湯 黃栗小白皮湯 桔槔湯 清心山藥湯 升麻開腦湯 桔梗元肉湯 註調胃湯 荔枝核湯
太陽人處方 (總 2方)	乾柿湯 獼猴桃湯

構造的으로만 전개된 『甲午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辛丑本』에서는 이를 극복한 발전된 體質病證 運營係가 완성되어지게 된다.

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나타난 治療精神

(1) 形象觀的 認識方法的 제시

① 體形氣像을 통한 四象人의 구분방법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太陽人 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이라 하여 四象人의 體形氣像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知行之象을 통한 體質診斷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形象觀的 認識係에 의거한 四象人의 體質診斷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偏小之臟 중심의 病證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病證論 篇名을 <표 4.>와 같이 命名하였는데 이는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토대로 腹背表裏(上下左右)의 構造的 認識을 기본으로 表部位의 腦顛, 腎, 腰脊, 膀胱과 裡部位의 胃脘, 胃, 小腸, 大腸의 部位 중 小한 部位를 傷한다고 하는 觀點의 篇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偏小之臟 중심의 篇名으로 表裏病證의 本意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辛丑本』으로 오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表裏概念에 寒熱概念이 도입된 새로운 篇名이 제시되게 된다.

표 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篇名

	表病	裏病
少陰人	外感腎病論	內觸胃病論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內觸大腸病論
太陰人	外感腦顛病論	內觸胃脘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內觸小腸病論

③ 標本論과 保命之主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膀胱大腸病篇尾 泛論」 및 「太陰人內觸胃脘病論」에서는 保命之主 및

標本部位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5.> 本은 小한 部位에 해당이 되고, 標는 大한 部位에 해당이 되며, 小한 部位에 의한 취약한 기능을 保命之主라 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形象觀的 認識係를 바탕으로 構造的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小한 部位인 本部位는 篇名과 관련되어 쉽게 外傷되거나 內觸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辛丑本』으로 가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 사라지게 된다.

표 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標本論과 保命之主

	本	標	保命之主
少陰人	腎 胃	膀胱 大腸	陽燄之氣
少陽人	膀胱 大腸	腎 胃	陰清之氣
太陰人	腦顛 胃脘	腰脊 小腸	呼散之氣
太陽人	腰脊 小腸	腦顛 胃脘	吸聚之氣

④ 表裏之表裏病論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는 表裏病證을 구분한 동시에 아울러 構造的인 입장의 表裏之表裏病概念을 도입하여 <표 6.>과 같이 病證을 분류하여 體質病證論의 기본을 제시하였다. 이는 形象觀的 입장에서 標本論과 保命之主를 바탕으로 도입된 概念이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발전하여 體質病證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形象觀的 입장에서 도식적인 병리적 설명 하에 이루어진 ‘表裡之表裡病’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인 體質病證을 포괄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드러나 『辛丑本』으로 가면서는 病證論이 새롭게 再編되게 되는 過程을 거치게 된다.

표 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表裡之表裡病論

	表病		裏病	
	表之表病	表之裏病	裏之表病	裏之裏病
少陰人	太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
少陽人	大青筋湯證	腹痛泄瀉證	上消中消下消證	傷寒證諸證
	小柴胡湯證			陰虛午熱證
太陰人	惡寒發熱長感病	陽毒煤瘧	腹痛自利 食滯痞滿 痢疾浮腫 有腹痛中風	虛勞夢泄
				無腹痛中風

⑤ 形證病證精神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少陰人外感腎病論」 “脾約病形證, 全體有汗人中不汗小便利者 爲主證, 而其始焉, 身熱汗自出不惡寒也..., ..., ... 胃家實病形證, 腹滿大便秘發狂者 爲主證. 而其始焉, 身熱汗自出不惡寒也...” 이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에서는 “發熱惡寒者 爲太陽病 發熱不惡寒者 爲陽明病 太陽陽明之發熱形證一也而...,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이라 하여 形證病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東武公의 形象觀的 認識方法에 의거한 것으로 개개 病證을 ‘形證’으로 要約하여 제시한 것이다.

⑥ 體質病證의 升降緩束의 調節精神

東武公은 少陰人·少陽人의 病證과 太陰人·太陽人의 病證을 각각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升降緩束의 調節精神을 제시하였다.

四象人의 生理的 特徵 하에 脾胃의 大小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 障碍로 病證이 발생하는 構造 中心의 病證體系로,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之氣 障碍로 病證이 발생하는 機能 中心의 病證體系로 나누고 있다. 더 나아가 病證運營에 있어서도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은 水穀之氣의 寒熱病證으로 그 治療精神은 上下升降의 調節에 있고,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은 氣液之氣의 溫涼病證으로 그 治療精神은 內外緩束의 調節에 있음을 각각 제시하였다.

(2) 性慾論的 認識方法의 제시

① 性氣·情氣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는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裡氣 故 解休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 然則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 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 喜性 傷耳腦髓氣 樂情 傷肺胃脘氣乎”라 하여 性氣는 表氣를 傷하고 情氣는 裏氣를 傷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性慾論的 認識方法이 발전하여 四象人 表裏病의 原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體質病證의 包括的 要約精神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陰人腎胃病篇尾泛論」에서는 “... 以邪犯正之病 不可不急用藥也, ... 正邪相傾之病 不可不預用藥也, ... 正邪壅錮之病 不可不大用藥也.”이라 하여 性慾論的 인식방법 하에 病證을 포괄적으로 要約하는 精神을 제시하고 있다.

2)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나타난 治療精神

(1) 體質病證의 確立

『甲午本』에서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추게 된 四象人의 體質病證은 『辛丑本』에 오면서 그 體系가 완성이 되게 된다.

『甲午本』에서는 形象觀的 認識方法에 의해 ‘標本論’, ‘保命之主’, ‘表裡之表裡病論’ 등을 제시하였는데, 『辛丑本』에서는 以上の 내용이 사라지고 실제 體質病證運營 차원에서의 病證論이 확립되게 된다. 즉 表裏病證에 寒熱개념이 더해지고,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을 같이 고려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體質病證體系로 완성이 되게 된다.

表裏病 篇名에 있어서도 좀더 실제적인 篇名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形象觀的 立場에서의 標本論이 빠지고 寒熱개념이 더해지며,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을 같이 고려하고, 性氣情氣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性氣病·情氣病 立場에서의 表裏病證論을 나타내는 篇名이라 할 수 있다.<표 7.>

표 7.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篇名

	表病	裏病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胃受寒裏寒病論
少陽人	脾寒受寒表寒病論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肝受熱裏熱病論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內觸小腸病論

(2) 體質病證管理處方의 탄생

『甲午本』을 토대로 『辛丑本』에 와서 體質病證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體質病證管理處方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

『甲午本』에서는 體質病證 및 表裏病證에 대한 기본 구도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治療處方에 있어서는 아직 體質病證別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辛丑本』으로 가면서 『甲午本』에서 제시된 처방 중 많은 수가 도태되고, 體質病證 및 表裏病證에 대한 運營精神 및 治療原則이 명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治療處方도 體質病證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體質病證管理處方으로 이행하게 된다. 즉, 『辛丑本』의 處方은 단순한 病證을 치료하기 위한 處方이라기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體質病證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개념의 처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전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서 제시되었던 처방들과는 그 중요성을 달리하여야만 할 것이다.

III. 結 論

1. 東武 李濟馬는 初期에 性慾論的 知人論을 배경으로 한 知人正己의 自律的 調節精神에서 그 治療精神을 추구하였고, ‘隱惡而揚善’의 正氣 중심의 治療精神을 강조하였다.
2. 『草本卷』 이후 形象觀的 認識方法을 배경으로 構造的인 입장에서 體質病證을 정리하였는데, 『草本卷』과 『甲午本』에서는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고, 『辛丑本』에서는 偏小之臟·偏大之臟을 같이 고려하고 寒熱개념을 더하여 한 단계 발전된 차원의 體質病證觀을 제시하였다.

3. 東武公의 體質病證 개념은 『東醫寶鑑』의 傷寒論的 表裏病 개념을 體質病證의으로 재해석하여 初期에는 個別病證의 治療精神으로 출발하였으나, 『辛丑本』에 가서는 體質病證의 包括的 管理精神으로 完成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治療處方에 있어 體質病證이 완성됨에 따라 『辛丑本』에서 包括的인 體質病證管理處方으로 새롭게 제시되는데, 『辛丑本』의 處方은 이전에 제시된 體質處方에 비하여 그 목적과 중요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5. 自律的 調節精神을 배경으로 한 知行的 調節과 體質病證 管理精神은 四象人의 自律的 治愈機轉을 극대화시켜 모든 질환을 包括的으로 管理하고자 하는 疾病의 治療 및 豫防精神임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格致彙. 덕흥인쇄소. 함흥. 1940.
2. 原人手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연변민족의학연구회. 1984.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初版本) 影印本. 四象醫學會刊行. 대성문화사. 서울. 1998.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한문회사. 서울 2000.